—학교로 가려면 저리로 갈텐데………
—아뇨 새로 지은 학교로 가게 됐답니다

송 용남 그림

8034 ХВАЛЬСАЛЬ
В ПЭК
УЛ.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
22 1.12
FDD
3 -MAY 2 6
Copy 1959

9월호 1957년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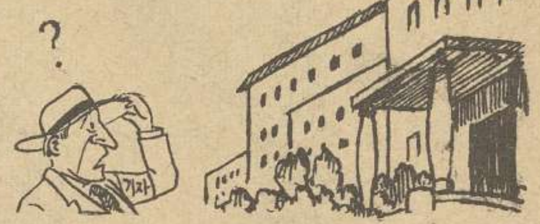
활살

40년 된 탈에 40도 체온

—념려 하실 것 없습니다
체온계에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요

박 승히 그림

리해할 수 없다



유 항 림

판문점에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 통신사의 젊은 특파 기자는 흔히 매부리코라는 이름으로 불리였다. 그는 처음으로 판문점에 왔을 때 우리측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거만하고 무례했다. 우리 기자들과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통성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특징적인 코를 이름 대신으로 삼아서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매부리코 기자는 우리측 기자들과 두번 세번 만나기를 거듭하는 사이에 태도가 점점 달라져서 요즘은 한가한 때면 잡담까지도 할 수 있는 사이로 되였다.

어느날 군사 정전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판문점 회의장 밖에서 우리측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끝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본국을 떠날 때 북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더부러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서로 사귈 수도 없는 괴물들이란 말을 들었소. 그러나 당신들과 정작 사귀여 보니 친절하고 례절답고 쾌활한 사람들이란 것을 알았소. 그런데 아직도 당신네들에게 전적으로 호감을 가질 수는 없게 하는 것이 한가지 있소. 그건 다름 아니라 당신네들 공산주의자들이 가끔 거짓말을 한다는 그것이요.》

《우리가 언제 어떤 거짓말을 했단 말이요?》

하고 우리측 기자들이 반문했다.

《북조선에 대학이 열 여섯이나 있다고 하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요?》

《열 여섯개의 대학이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요.》

《아니요. 나로선 믿을 수 없소. 그건 당신네들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이요. 북조선에 웬 자본가나 지주가 그렇게 많다는 말이요?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측 기자들이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로동자 농민의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한참 동안이나 친절히 설명해 주었지만 이 미국 기자는 끝내 믿지를 않았다. 자기네 나라 미국에서는 로동자나 농민의 자녀가 대학에서 공부할 수는 도저히 없으므로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모양이다

나날이 달라지는 평양의 모습

—길이 복잡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구나

—길이 환히 티여 더욱 모르겠구나

리 영춘 그림

비난 받는 《전쟁송가》

신 춘

서울 수도 극장을 비롯하여 남조선 중요 도시들에서는 《전쟁 송가》란 미국 영화가 광범히 상연되고 있다.

이 영화는 그의 표제가 설명하여 주는 바와 같이 전쟁을 례찬하는 사상으로 충만되여 있는 작품이다.

《전쟁의 세례는 이땅에 하나님의 은덕을 가져다 주었다. 송가를 불러라!》 이것이 바로 조선 침략 전쟁을 찬미한 《전쟁 송가》의 한 구절이다.

그리하여 미국이 조선에 대한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이 영화의 기본 사상으로 되여 있다.

스크린에는 《미국 신사》들이 조선의 전쟁 고아를 수용소에 몰아 넣고 조롱하며 경멸하고 마소와 같이 부려먹는 참을 수 없는 인간 멸시의 장면들이 소개된다.

조선을 《미개한 나라》로 조선 사람을 《렬등한 민족》으로 묘사했고 미국 사람은 마치 《박애》와 《자선가》인 듯이 《고마운 구세주》로 내 세웠다.

다시 말하면 조선 전쟁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서 조선의 전쟁 고아가 미국이 《미개한 나라》에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덕》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철면피한 수작인가? 그들의 부모를 학살한 자는 그 누구며 그들을 전쟁 고아로 헤매이게 만든 자는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 조선 인민에게 온갖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은 오직 불구대천의 원쑤 미 제국주의자들이란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미 국방성은 전쟁 선동을 목적으로 헤스란 자에게 《록펠러 재단》의 장려금까지 지불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소설을 쓰게 하여 영국, 불란서, 이태리, 서반아등 6개국어로 번역 출판하는 한편 이것을 즉시 영화화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 《전쟁 송가》의 저자 헤스란자는 과연 어떠한 자인가?

그는 다름 아닌 《미국 목사》로서 조선 전쟁에 참가했던 《미 공군 대좌》이다.

헤스는 조선 전쟁 시기에 미 공군 전투 폭격기 대대를 인솔하고 무려 250 여차에 걸친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특히 그 저주로운 세균탄과 고성능 폭탄을 투하하던 인간 백정의 《위훈자》이다.

그러니 이 저자가 어떤 립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썼으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자고 깨면 《북진》만을 떠버리는 리 승만 도배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전쟁 송가》를 극구 찬양하면서 《문교, 국방, 내무》 3부 장관의 공동 명의로 추천하는 한편 공무원과 학생은 물론 일반 군중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관람하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이 《전쟁 송가》를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오늘날 비참한 처지가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인식시키려는 것이며 또한 자기들의 전쟁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속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리 승만 도배는 이 영화가 남조선 인민들에게 유일 무쌍한 《복음서》로 된다고 목청을 돋구어 떠들어 대면서 그의 저자 헤스 《목사》에게 남조선에 와서 《신부》로 영주해 달라고 애걸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태는 다르다. 영화 상연 도중에 격분에 찬 군중들은 침을 배알으며 뿔뿔이 헤어진다. 조선 사람이라면 참아 끝까지 앉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간곳마다 인민들의 비난과 규탄을 받을 뿐 《복음서》로는 되지 못했다.

어떤 미국 기자까지도 《이 〈전쟁 송가〉는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반미 감정을 더욱 불러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무런 장려할 가치가 없다》고 비난하였다.

유•엔군 사령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

박 승히 그림

자유 없는 "자 유"

신 홍순

판문점 정전 위원회 제 65차 회의 때 미국측 수석 대표로 있던 파크스가 갑자기 파면 당했다.

무슨 리유로서 그가 파면을 당했는가? 그 내용은 이러하다.

회의장에서는 쌍방 대표들의 비밀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회의장 밖에는 십여명의 쌍방측 기자들이 모여 있다.

우리측 대표의 발언 중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이다!》《미제는 물러 가라!》 큰 소리가 새여 나올 때마다 미국측 기자들은 깜짝깜짝 놀랜다.

우리측 R 기자는 미국 유•피•통신 기자에게 《당신네는 오늘 기자 회견을 조직한단 말을 들었는데 나도 참가할 수 없겠는가?》고 제의했다.

《당신이 참가하신다면 우린 쌍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쌍방 기자가 회견한 례가 없었는데 이건 참 세계 언론계에 일대 쎈세이슌을 일으킬겁니다.》

옆에 섰던 에이•피 기자도 같이 기뻐하였다.

《허지만 당신네 대표가 승락할까요?》

《아 물론 듣구 말구요. 우리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니만치 틀림 없이 들어 줄겁니다. 그건 내가 책임지죠.》

휴계 시간에 미국측 수석 대표 파크스가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즉시 그 사연을 제기하였다. 파크스는 당황한 남어지 자기네 휴계실로 가서 한참 의논한 후 유•피 기자가 상을 찌프리고 나왔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리측 건물 안에는 공산측 기자가 들어 오지 않기로 정전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량손을 벌리고 어깨를 추켜 들며 이렇게 전달한다.

《정전 협정에 어디 그 따위 조항이 있소? 그건 괜은 말이요!》

《참 없던가요?》 그는 협정 내용을 몰랐던 것이다.

《정 그러면 건물 밖에서 하면 그만아뇨?》

《참 그러면 되겠군요! 그럼 내 다시 물어 보죠.》

잠시 후 그는 다녀 와서 머리를 저오며 미안한 기색을 보인다.

《우린 오늘 기자 회견을 안하기로 됐답니다》

《그래요?'그럼 우리측에서 조직하도록 할테니 당신측 기자들은 다 참가해 주겠소?》

《아 그러면야 다 참가하구 말구요.》

《그러나 당신측 대표가 그것은 허락할까요?》

《그런것까지 제압해서야 어쩝니까? 그건 우리 기자들의 자유인데 대표도 간섭 못합니다.》

옆에 있던 에이•피 기자도 《그런건 우리 맘대로니까요》하고 발을 단다.

《그럼 우리측 대표에게 제의해 보겠소.》

우리측 대표는 쾌히 승락하였다. 한편 다과까지 준비시켜 놓았다.

그날 오후 여섯시 정각 우리측 휴게실에서 기자 회견을 하기로 됐다는 말을 듣자 모두들 기뻐했다. 이것은 제네바 회의 이래 《력사적인 회견》이라고 하면서 좋아했다.

그들은 직접 미국 방송국에 련락하여 텔레비죤 방송을 조직헌다 그 시간 방송 푸로를 변경시켜 예고까지 하도록 헌다 한참 서둘러 됐다.

아닌게 아니라 얼마 후에 서울로부터 헤리콥터 한대가 텔레비죤 기계를 싣고 왔다.

유•피 기자는 신바람이 나서 우리측 R 기자에게 자랑을 한다.

《사실 여기 온 미국측 대표 파크스란 자는 군부 출신이 돼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걸 모릅니다. 자 보십쇼, 미국 방송국에서까지도 이렇게 척척 들어 주는 걸!》

이러자 마침 회의가 끝났다. 미국측 수석 대표가 밖으로 나오자 미국측 기자들은 자랑삼아 얘기했다.

그 말을 들은 파크스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우리측 기자가 공산측 건물에 들어 가는 것을 나는 허락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내 던지고 자기네 휴계실로 들어갔다.

미국측 휴계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옥씬각씬 보채기를 찢는 소리가 나왔다. 《미국 기자의 체면 문제》라느니 《공산측 기자 앞에서 이런 개망신은 없다》느니 《이게 언론의 자유냐?》라느니 하고 질문들을 드리댔다.

미국 대표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상부에 물어 보겠다고 하였다.

얼마 후에 미 극동 사령부로부터 미 국방성의 지시라고 하면서 이런 회답이 왔다.

《아직 전시 상태니만치 공산측파의 기자 접견은 허락할 수 없다.》

유•피 통신 기자를 비롯한 미국측 기자들은 분개하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데 대한 항의서를 내는 한편 일본 쟈판 타임 지상을 통하여 에이•피 특파원의 이름으로 《북조선에서 조직한 기자회견에 우리는 왜 참가 못하였는가?》란 표제 아래 미국의 언론 억압을 폭로하였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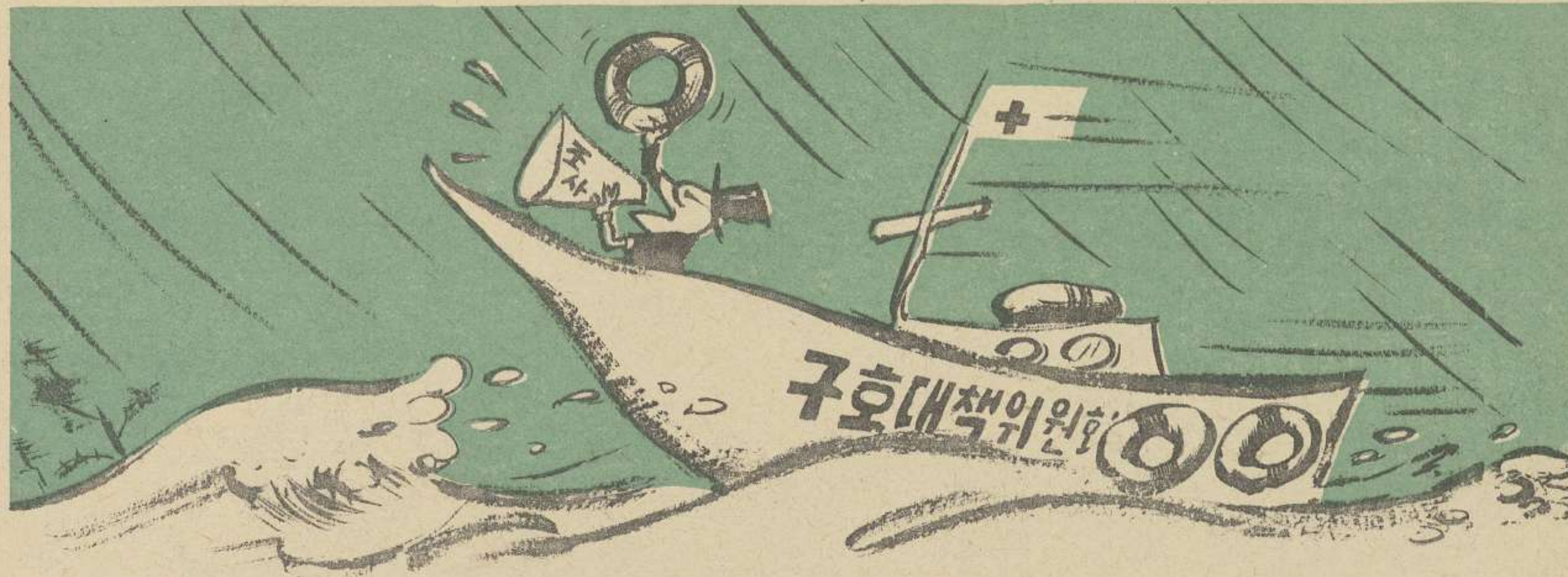
《만약 공산측이 조직하는 기자 회견에 자유로 참가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출입증과 신분증 입국증을 뺏겠다! 그리고 반미 조사 위원회에 넘기겠다!고 위협하였다.》

미국 워싱톤에서는 자기네 립장이 곤난하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마치 파크스 개인의 잘못인 듯이 뒤집어 씌워 그를 파면시켰던 것이다.

그후 미국측은 자기네 기자들에게 대한 더욱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다. 그것은 회의장에 우리측 기자는 맘대로 참가하는데 그들은 비밀이라 하여 애당초 참가도 안시키고 회의가 끝난 다음 골자만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말로는 《언론의 자유》라고 곧잘 떠버리지만 사실은 그 《자유》란 자유 없는 《자유》인 것이다.

리 승만의 수해 대책

전쟁 준비에만 발광하고 풍수해 대책에는 무관심한 리 승만 괴뢰 정부는 수해 지구 농민에 대한 구호 대책이란 말 뿐이고 략탈적 하곡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백 인균 그림

우스운 이야기

웃고 보니

호랑이 한마리가 늙어서 사냥도 못하게 되었다. 하루는 무어든 먹을 게 없을까 하고 어슬렁 어슬렁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걸음이 느려져서 노루도 잡을 수 없고 토끼도 잡을 수 없고… 무얼 먹는담!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저 아래 골짜기를 내려다 보니 숲이 우거진 사이에 부대가 한 뙈악 있는데 그 부대밭에서 웬 사내가 웃통을 벗고 김을 매는지라, 늙은 호랑이가 생각컨데 숲속으로 살금살금 내려가서 덮치기만 하면 문제 없이 잡을 것이요. 이왕 웃통까지 벗고 있으니 옷을 찢어 헤치는 수고도 필요 없을 것이라, 인제는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을 수가 생겼다고 기뻐하였다.

오랫만에 이처럼 기쁜 일을 만나고 보니 자꾸만 웃음이 터져나오려고 했다. 그렇다고 여기서 웃어 버리면 김매던 사람이 달아날 념려가 있고… 그래서 겨우 웃음을 참고서 반대편 골짜기로 내려가서 한참 동안 웃고 나서 웃음이 진정된 후에 인제는 잡아 먹어야겠다고 다시 산'등성이에 올라서서 보니 어랍쇼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거참 조환데…

아버지가 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조환데, 왜 이렇게 톱이 들질 않을까?》

옆에서 보고 있던 장난'군 아들이 고개를 개웃하고 말하기를

《거 참 조환데요. 아까 기와'장을 벨 때는 잘 들었는데…》

수탉을 타고

옛날 정 수동이 당나귀를 타고 먼 시골로 친구를 찾아 갔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서울로 왔을 때는 늘 정 수동을 초대하면서 마치 잘 대접이라도 할 것 같이 말해 오더니, 정작 찾아가 보니 말하던 것과는 달랐다.

《시골이라 안주 가음이 아무 것도 없어서…》

변명이나 하듯이 되뇌이더니 주안 상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안주라고는 김치 한그릇이 있을 뿐이었다.

풍자를 즐기는 정 수동이 이 꼴을 보고 가만 있을 수가 없었다.

《시골서는 거 참 안주 가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게요. 그러니 내가 타고 온 저 당나귀라도 잡아서 한잔 먹도록 합시다.》

《당나귀를 잡아 먹으면 형장께선 무얼 타고 돌아가시려오?》

《그건 걱정 없소이다. 저기 뜨락에 있는 저 수탉을 좀 빌려 주시구려, 난 수탉이나 타고 가지요.》

뜨락에 가득한 닭을 두고도 아까와서 손님 대접을 하지 않으려던 주인은 낯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효과는 있었다

옛날 어느 객주'집에 길가던 손님이 들어서 자게 되었는데 이 길손은 객주에 들자 주인을 불러 보따리를 맡기면서 부탁했다.

《이 보따리 속에는 금'덩이가 들어 있으니 잘 보관했다가 래일 아침에 내가 떠날 때 내 주시오.》

객주'집 주인은 금'덩이를 맡아놓고 보니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 이 금'덩이를 어떻거면 돌려주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안해와 둘이 함께 의논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끝에 안해가 좋은 수를 생각해 냈다. 호박씨를 까 먹으면 잊어버리기를 잘한다는데, 호박씨를 많이 까서 손님에게 대접하면 손님이 보따리 맡긴 것을 잊어버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인 부처는 옆집으로 돌아 다니며 호박씨를 많이 모아다가 밤에도 손님에게 대접했고 아침 식전에도 대접했다.

그런데도 손님은 떠날 때 보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인에게서 받아가지고 떠나버렸다.

손님이 떠난 뒤에 부처는 마주 앉아서 호박씨를 먹으면 잊어버리기를 잘한다는 말도 공연한 소리라고 했었다. 그때 무엇을 생각했는지 객주'집 주인은 무릎을 치면서 중얼거렸다.

《역시 호박씨가 효과는 있었군! 그 손님이 잊어버리긴 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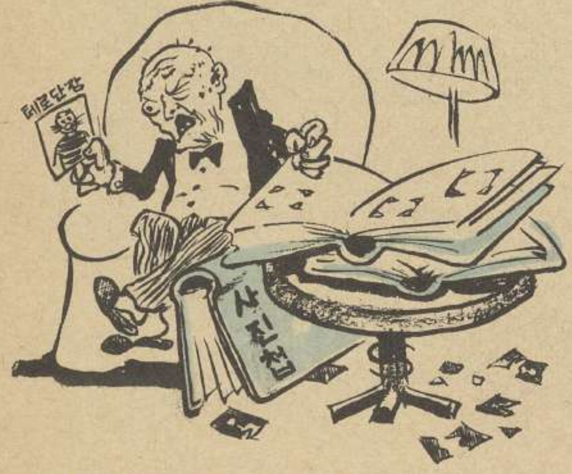
《잊다니, 무얼요?》

《밥 값 치를 걸 잊어버리고 갔으니까 말이지.》

호랑이 탄 리 승만

리 승만은 가중되는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팟쇼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물론 정계에서 더욱 고립 배격 당하고 있다.

빈번한 장관 교체



—요놈만은 입안의 혀 같이 놀아 주겠지

신판 농노제 실시

덮어놓고 열닷량

—피고는 야당원입니다
—그럼 징역을 보내야겠군

백 인규 그림

수해와 하곡 수집

곽 상 기

남조선 전역을 수해가 휩쓸게 되자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무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각 《장관》들을 각도에 직접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수해 대책이라는 것은 리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대책인 것이 아니였다. 수해 때문에 《하곡수집》이 예정대로 되지 못할 념려가 있으므로 《하곡 수집》을 강력히 독려하기 위해 《장관》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장관》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도로 나가자 다시 각 군으로 독려대를 파견하고, 군에서는 면으로, 면에서 각 리로……그리하여 마을마다 《하곡 수집 독려대》가 나타나 집집을 두지였다.

어느 한 농가에서는 보리 한 가마니를 사이에 놓고 독려대와 농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나릿님, 이거 사정 좀 봐 주십쇼. 홍수에 몽땅 떠내려 보내고 남은 것이 이것 뿐인데 이것까지 내라고 하면 우린 어떠커란 말입니까?》

《그러기에 홍수에 떠내려 간 건 하곡 수집에서 면제해 준다고 하지 않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는 하곡 수집에서 면제해 주신단말입죠?》

《이 자식아, 그만큼 말하는데두 아직 알아듣지 못하겠어? 홍수에 떠내려 간건 전부 면제하지만 그대신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은건 하곡 수집에 응해야 한단 말야》

《그러니까 홍수에 몽땅 떠내려 보낸 우리 집은 면제해……》

《이 자식아, 아직도 천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독려대는 농민의 뺨을 갈기면서 버럭 고함을 질렀다.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았기에 여기 이 보리가 있는거 안야?! 여기 있는 건 내놔야 한단 말야.》

가면을 벗어 버린 아이젠하워

미제는 씨리아에 대한 온갖 위협과 경제 봉쇄와 파괴 음모를 계속해 왔으나 씨리아의 애국적 력량에 의하여 그들의 침략 기도가 그 때마다 분쇄되자 직접적 무력 간섭이라도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조작해 내기에 급급하고 있다.

—왼쪽 것도 바른쪽 것도 싫다하니
체면 차리긴 다 틀렸다!

박 승히 그림

남반부의 일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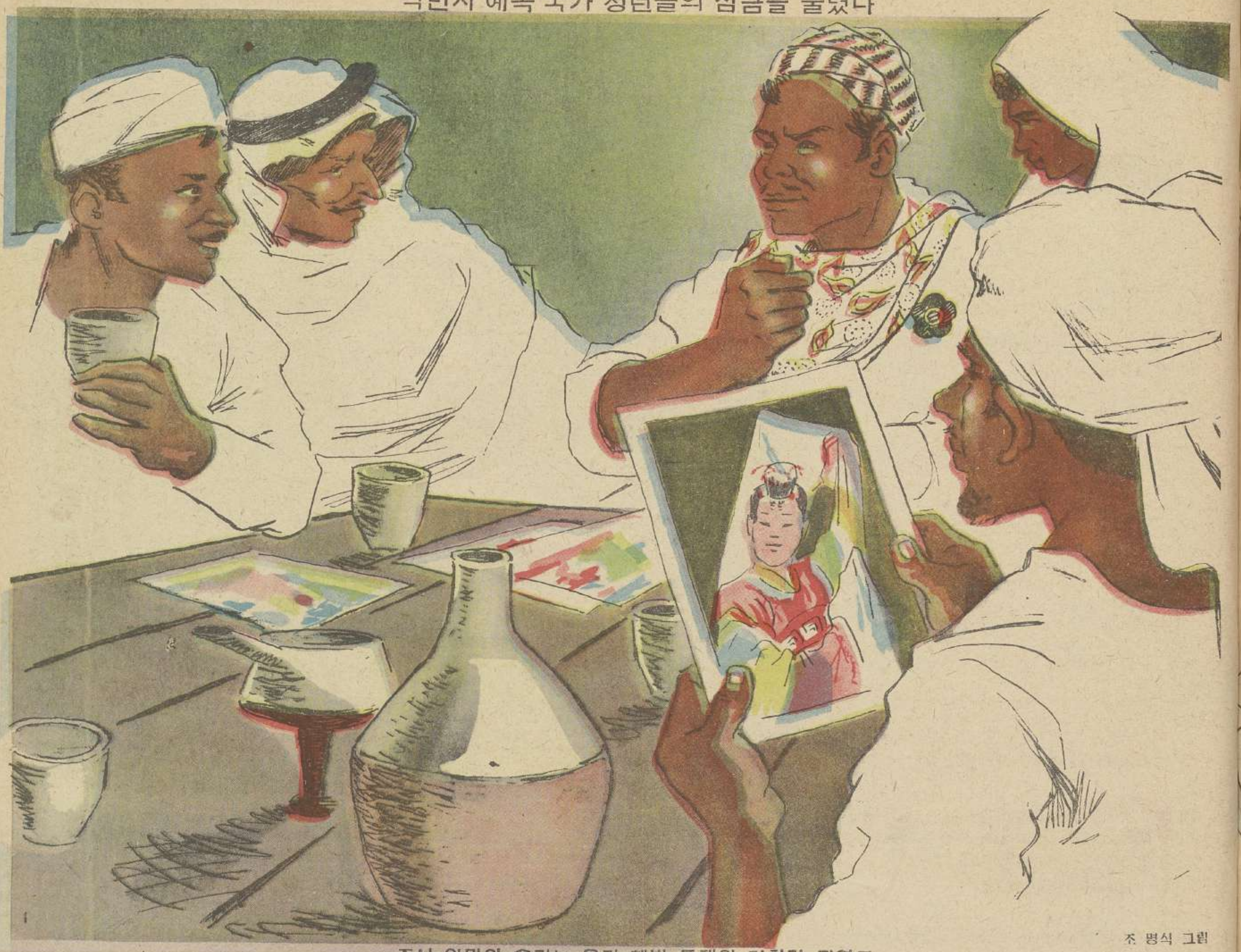
미국 상전의 기분에 따라

학생모 밑에 고생'
바가지가 보인다

벼'포기 줄보다 빗받이'군 줄이 더 길다

송 융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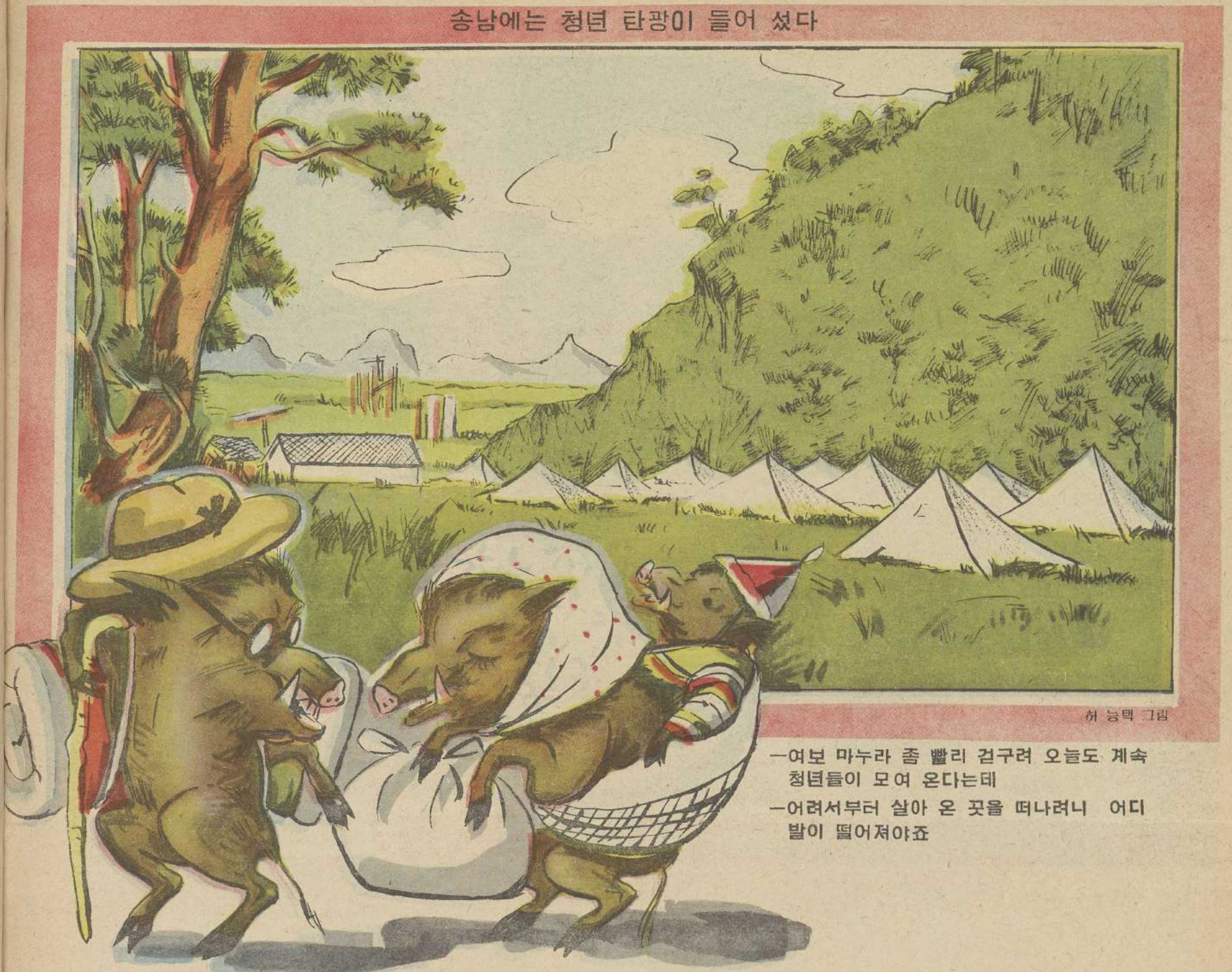
식민지 예속 국가 청년들의 심금을 울렸다



조 명식 그림

조선 인민의 승리는 우리 해방 투쟁의 기치가 되였고
조선 인민의 예술은 우리를 경탄시켰다

송남에는 청년 탄광이 들어 섰다



허 능텍 그림

—여보 마누라 좀 빨리 걷구려 오늘도 계속 청년들이 모여 온다는데

—어려서부터 살아 온 곳을 떠나려니 어디 발이 떨어져야죠

리 영춘 그림

—할아버지 유람 빠스 태워 주어요
—요담에 타자

—할아버지 우리도 찬'장을 사요
—그런 것은 집에 있지 않니

—술통을 보니 한잔 생각이 나는군
—할아버지 술은 그만 두어요

—할아버지 수박 사 주어요
—이왕이면 야시장에 가서 사지

—할아버지 웬 사람들이야요

—알구보니 춤이구나 얼시구 절시구
우리 나라 좋을 시구

군비 축소에 대한 미국의 태도

최 영근 그림

—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언제나 당신을 배반 않겠소

앵무새

웨•알렉쎄예브

어느날 울창한 숲속으로
앵무새 한마리가 날아 들었다.
바로 이때 짐승들은 총회를 열고
월동 준비 사업을 토의하던 중.
늦어서야 나타난 앵무새는
오자마자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곰은 보고를 계속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소
겨울에는 누구에게나 땅'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급히 난방 장치 해야하며
나무잎과 나무가지를 깔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예비 통로도 파내야 하오!…
개한테 발견되지 않도록
나무가지를 땅'굴 주위에 깔아야 하오!》
보고는 끝이 났다.

딱따구리는 일어나 토론하였다.
나무 구멍을 깊이 파기 위해선
굵다란 나무를 고를 것을 제의 하였다.
목소리가 가늘고 여윈 콩새도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벌레며 열매를 저축하자고……
간단히 말하여 모두다 마음대로
자기 의견 털어 놓았다.
토론할 때는 서로 론의하며 제의 해야지.

그런데 바로 짐승들의 법석통이 잔잔해지자
날아온 앵무새는 언권을 얻었다.
나무 등걸에 후다닥 뛰여 올라
군기침하고 나서 띠염띠염 자기 토론:
《겨울이 다가 옵니다!
겨울은 가까워 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겨울은 벌써 코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곰이 옳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땅'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야죠!
겨울 동안에 굶지 않으려면
벌레며 열매들이 필요하다는
콩새의 제의에도 찬동합니다.
나무 구멍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 보겠소!…
나무가 굵으면 구멍도 깊지요
가는 나무 구멍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처럼 남의 말을 되풀이했다.

얻어들은 밑천을 다 털어놓자
자기 말을 두어 마디 첨가하려고 했다.
잠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앵무새는 바보요!》하고 말을 끊었다.

얼마전에 어느한 회의에서
《상부》이며 《지도자》로 내려오신 대표자 동무,
사전에 아무와도 담화도 않고 토론하였다.
적절한 지시를 줄 대신에
다 알고 남은 말 길게 늘어 놓았다.

이 동무와 앵무새가 다른게 무엇이랴,
한가지 있다면
그래도 앵무새는 자기 비판한 것.

(한 동신 번역)

타격

침략자들을 저지 시키라!

미국 상원위원 뜨•그린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는 먼 아프리카 에찌오피아의 수도인 아지스 아베바에서 《쏘련 시설로써 설비됐으며 쏘련 의사들이 경영하고 있는 훌륭하게 설비된》 병원을 발견했다. 바로 여기에 공포가 있다. 즉 《병원은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 가운데서 선전을 하기에 편리한 장소로 된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의 교활한 손이 도대체 어데까지 뻗치였는가? —상원 위원 그린은 경종을 울린다—에찌오피야의 환자들은 치료가 요구되는데 박정한 쏘련 의사들은 그들에게 공산주의 선전을 침투시키고 있다! 라고——

그린씨는 온 아프리카를 거의 다 돌아다녔다. 아프리카는 무덥다. 존경할만한 상원위원은 아마 더위에 타버린 모양이다. 〈선전〉으로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의 적신을 구하려고 할 대신에 바로 아지스 아베바에서 쏘련 의사에게 의뢰하여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상의해야 했을 것인데……

끄로꼬질 20호에서

국제적 사변이 발전함에 따라 서부 독일에서는 다시금 독일의 젊은이들을 죽엄으로 내모는 군국주의가 지반을 쌓기 시작했다.

최근에 서부 독일 군벌은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계획에서 언제나 커다란 역할을 놀고 있다.

여기에 구라파 평화에 커다란 위협이 있다.

나에게는 이렇게 생각된다. 만일 지구상의 순박한 사람들이 《전쟁을 없새라!》《침략자들을 저지 시키라!》 이렇게 말한다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렇다. 새로운 강탈적 행진에 대하여 꿈꾸고 있는 복쑤주의자들을 우리는 힘을 합하여 억눌러 놓아야 한다.

평화를 위한 공동 투쟁에서 쏘련과 독일 근로자들간의 친선을 공고 발전 시키자!

《뜨루—드》 지에서

위신을 차리는 사람

리 운 봉

위신— 차 지배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에게는 모든 사업의 성과가 지도하는 사람의 위신에 달려 있다고 리해되고 있다.

그가 지배인으로 부임한 이튿날 로동부장이 결재를 받으러 들어왔다.

지배인은 생각했다.

《위신이 있을라면 엄격하게 굴어서 엄엄하게 보여야 한다》

그래서 지배인은 별로 탓할 것 없는 문건이였지만

《이런 걸 지배인에게 결재해 달라고 가지고 왔소?! 이건 지배인에게 대한 존엄성 문제요. 다시 잘 써 가지고 오시요.》 하고 퇴 놓았다.

하루는 기술부장이 들어와서 로동자들의 기술 전습회 조직을 개편할 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좋은 의견이다. 허지만 부장의 의견을 들는다면 내 위신 문제가 아닌가! 내 두뇌가 자기들의 두뇌만두 못하다고 생각할테니까》

그래서 지배인은 말했다.

《내가 벌써 그 문제를 상부에 문의해 봤소. 성에서 승인하지 않소.》

그런데 차 지배인이 어디로 가려고 공장을 나오다가 공급부에 배급을 타러 오는 안해와 마주쳤다. 그는 마치 무슨 창피나 당한 듯이 얼굴이 붉어져서 안해를 꾸짖었다.

《여보 이게 무슨 망신이요?! 당신은 내 위신을 싹 말아 먹소. 사람들이 보기 전에 빨리 들어 가우! 내가 비서를 시킬테니까.》

그날 저녁 차 지배인은 안해에게 당부했다.

《내가 밑의 사람들에게 위신이 있을라면 당신도 처신을 잘해야 되우. 그러니까 어디 갈려면 아이들을 보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차를 보낼테니까.》

그런데 차 지배인에게 두통'거리가 하나 생겼다. 상부에서 지도 일'군들은 군중 속으로 들어 가라는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이다.

《지배인이 위신이 있을라면 로동자들이 지배인을 보기 힘들 정도로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상부에서는 단위 책임자의 위신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니…》

당 회의가 열리였다. 당원들이 지배인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지배인 동지는 자기의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배인은 놀램과 노여움에 가득 차 토론자를 쳐다 보았다.

《아니 저게 내가 직접 배워 준 학생이 아닌가?! 그건 다른 사람들두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내 위신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배워 준 학생이 다 나를 교양하려드니…》

다른 사람이 토론했다.

《지배인 동지는 집체적 지도 방법이 미약합니다…》

《아니! 한개 부기원한테 다 비판을 받다니!!》

지배인은 자기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 올라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의장! 내 머리가 아아파 좀 들어 가야겠소》

지배인은 의장의 승인도 기다리지 않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한개의 부기원한테 다 비판을 받구… 이 일을 로동자들이 알면 나를 작업 반장만치도 여기지 않을게 아닌가!》

그는 눈알이 아찔하여 술 취한 사람 처럼 비칠거리며 걸어 갔다.

그는 집에 들어가자 맥시 풀려서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자리에 쓸어졌다.

깨여진 꿈

윤 원 길

학령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류 동민은 노크를 하고 군 인민 위원장실로 들어섰다.

《위원장 동지, 가축을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 조합은 전망성이 없습니다. 양을 50두는 배당해 주어야 겠습니다.》

황남도 삼천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은 이마'살을 찌푸리였으나 곧 고개를 들고

《그래 관리 위원장 동무, 책임을 지겠소, 30두의 송아지도 적은 가축이 아닌데, 50두의 양까지 가져다 길러 낼 자신이 있소?》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 꼬리를 흐린다.

류 동민 관리 위원장은 두 손을 마주 싹싹 부비며 허리를 좀 낮추고 《우리 조합에서는 축산을 대규모로 발전시키기로 토의했지요. 꼭 양을 50두 배정해 주기 바랍니다. 군 위원장 동지가 우리 조합에 50두의 양을 배정한 것을 꼭 자랑 삼아 이야기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작이나 좋겠소, 그러면 양 50두를 가져 가시요.》

조합에 돌아온 류 동민 관리 위원장은 혼자 속으로 《나처럼 수완 있는 위원장을 만난 조합원들은 행복이지》 하고 생각하며 림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였다. 관리 위원장은 가슴팍을 뒤로 제치고 뒤'짐을 지고 연설을 시작하였다.

《군 위원장 동지는 특별히 나를 보아서 양 50두를 우리 조합에 배정하였소. 36두의 송아지에 50두의 양을 합치면 군에서 가축이 제일 많은 조합으로 되는 것이요 이처럼 며칠 동안에 군에서 가축이 제일 많은 조합으로 된 것은 오직 나를 비롯한 관리 일'군들의 노력의 결과요. 래일부터 곧 축사를 지어야 겠소》

조합원들은 36두의 송아지도 축사가 없어 로상에 매여둔 형편인데 50두의 양이 더 온다는 바람에 놀란 남어지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이다.

《하나 들어도 좋습네까? 사료를 준비하지 않고 가축만 늘어도 곤난하지 않을까요?》하고 제 1 작업 반장이 질문을 하자 조합원들은 동감이라고 고개를 꺼득하였다.

류 동민 관리 위원장은 다소 어성을 높이어

《그래 당신은 벌어다 놓은 가축도 먹이지 못하겠단 말이요?》하고 책상을 꽝하고 주먹으로 내리쳤다. 작업 반장은 재차 입을 열려다 관리 위원장의 쏘아보는 눈'살에 그만 움추러 들었다.

겨울이 왔다. 바람은 눈을 휘몰아쳤다. 축산 반에서는 송아지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련신 보고가 올라 왔다.

축사에 관리 위원장이 내려 왔다.

《사료는 생채로 주드래도 물은 끓여 먹여야 겠는데요》 축산 반장은 부탁이나 하듯이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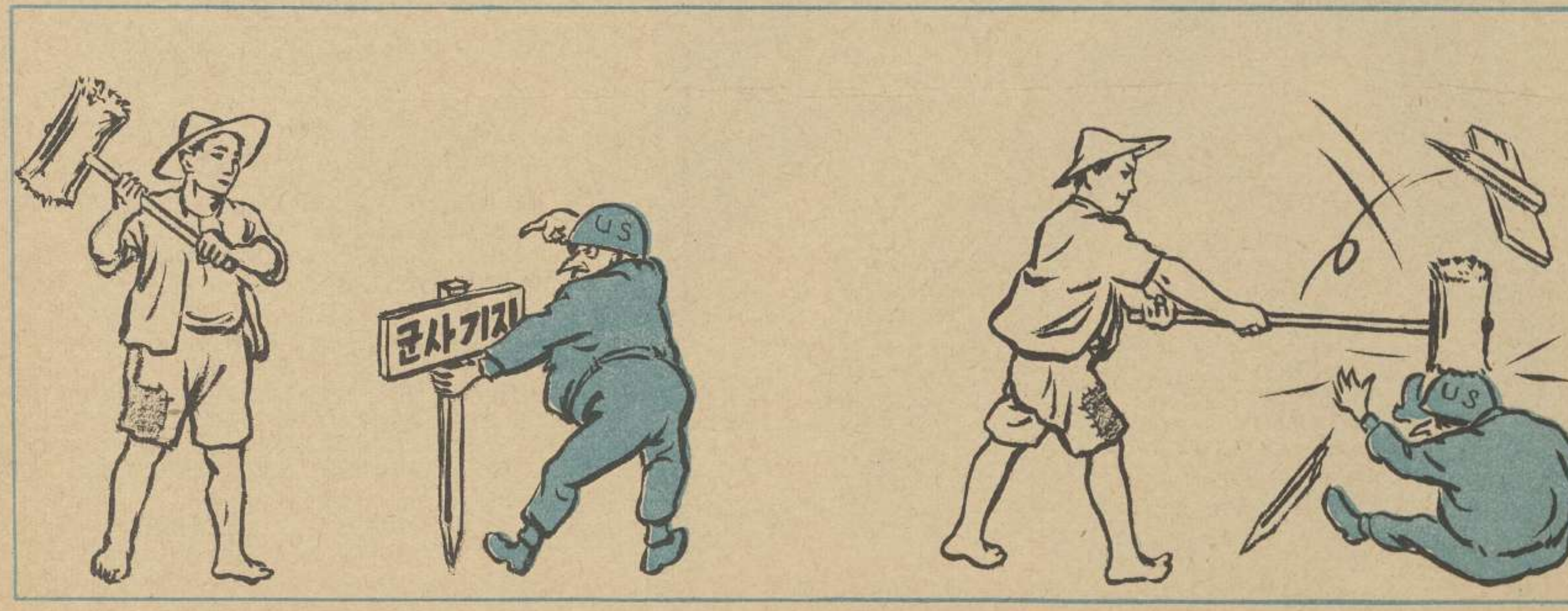
《짐승이란 단련시켜야 무탈한 법이요. 아침마다 강가에 나아가 어름을 끄고 찬물을 먹이시오》하고 관리 위원장은 배알듯 말을 던지였다.

해가 바뀌고 봄이되자 송아지와 양들이 털석 털석 죽어 넘어졌다.

류 동민 관리 위원장은 《송아지 13두 양 11두 폐사》라고 쓴 종이 쪽지를 들고 고개를 푹 숙인채 오래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군 위원장 동지 우리 조합에 양 50두를 배정한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 할 날이 꼭 오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 말마디가 생생히 떠 올랐다. 류 동민 관리 위원장의 출세의 꿈은 산산 쪼각으로 깨졌다.

바로 쳤다



송 용남 그림

밀주가 있는 마을에서

—그 술은 어데서 사오니?
—영희네 집에서요 그런데 누가 물으면
상점에서 사온다고 하라 했어요……

홍 종호 그림

일부 농촌들에서는 밀주를 대리는 등 량곡을 랑비하는 현상이 있다.

현장은 보지도 않고

작업 반원—오늘도 작업 평가를 해 주어야지요
작업 반장—무얼 어제나 그제나 같게 해서
벌써 부기에 넘겼네

조 명식 그림

경각성이 무딘 구석을 찾아서

연설과 실지

우리 동 사무장은 일 잘하고 열성분자라구 소문난 사무장이랍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 오던가 때로는 구역 인민 위원회에서 강습을 받고 돌아오게 되면 곧 선전원과 반장들을 모아 놓고 지시를 전달하고 사업 조직을 한답니다. 그 뒤로는 곧 전체 동민들에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몸소 강습회에 나가서 강연도 하신답니다.

오늘도 반총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 간첩 투쟁을 강화하여 항상 경각심을 높이며 우리의 주위를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라고 땀을 담뿍 흘리면서 강연을 하시고 막 돌아오신 길입니다.

때마침 어떤 손님 한분이 사무장 앞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하더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우리 사무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도원 앞에 꼰쳐 있는 주민 대장 몇 권을 빼더니 그 낯선 손님에게 다 맡겨 버렸답니다.

주민 대장 하나만 가지면 별의별 걸 다 알 수 있는 중요 문건이라는 것도 잘 아시겠는데——

그러구 보니 우리 동 사무장은 아무래도 연설과 실지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야

자랑 끝에

7월 어느날 ××공장 지배인실에는 전화 소리가 요란히 울려 왔다.

지배인은 황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지배인—아 오래간만이군 그래, 언제 올라왔나?

친 구—이제 막 기차에서 내리는 길이네—혹시 어델 나가지나 않았나 해서 전화부터 걸었네…요사이 재미는 어떻나?

지배인—재미! 재미 좋지! 근심되던 상반년도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요사이 한시름 놓았네——

친 구—그것 참 수고했군 그래? 그런데 부문별 계획은 어떻게 됐나?

지배인—어서 들어와서 천천히 이야기하세

친 구—어보게 들어가기가 바빠서 묻는 말일세——

지배인—아 그새가 바빠서? 그거야 어부가 있나…

지배인은 근 10분 동안이나 전화통에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잡은간첩에게서 얻은 자료에는 그 공장 기밀이 적혀 있었다고——

친한 친구라해서 전화통에다 대고 공개할 수 없는 수'자까지 함부로 지꺼려 대는 얼빠진 일'군들도 있다.

속빠진 《쾌활'군》

퇴근 종이 울리자 젊은이들이 유쾌한 웃음 소리와 함께 거리는 돌연 사람의 파도를 이룬다.

긴장된 하루의 작업을 마친 그들은 마음도 가볍게 몇몇식 떼를 지어 빠스 정류장으로 혹은 공원으로 영화관으로 제가끔 흩어진다.

쾌활한 웃음 소리 이야기 소리… 물론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 쾌활해야지요 일 잘하고 놀기 잘하고——쾌활한 것보다 더한게 있나요——

그런데 때로는 지나치게 쾌활한 분네들을 만나게 된다. 오늘 회의가 어떻구 어떻구 누구의 토론은 어떻구, 그 발언이 옳으니 글으니 오늘 작업 조직이 어떻구 오늘 생산 계획은 어떻구…

혹은 빠스 정류소에서 길을 거닐면서 공원에서 대합실에서 가정에서 조금도 서슴치 않고 전부 털어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분네들——

또는 밤 늦어 회의가 끝나 집으로 돌아갈 때 인기척도 별로 없는 조용한 거리라 하여 마음 놓고 떠버리는 분네들——이렇한 분별 없는 쾌활'군들은 《유쾌히》국가 기밀을 루설할 수 있는 속빠진 쾌활'군.

김 상 애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년로한 사람들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동문 서답

최 영근 그림

—여보 령감 개미 소리라도 놓칠세라 경비를
잘 서시우
—예? 저녁이요? 먹구 말구요

쉬운 말

김 광 현

갑—《을에게》 아! 동무 수고했소. 그래 그 소비 조합 산하 사람들은 강연 사업에 잘 참가합디까?

을—네 참가는 잘하는데 눈을 감구 코를 고는 사람들이 많아서………

갑—아니 뭐 코를 곤다고………

을—네 그리구, 또 이구석 저구석에서 쑤군 쑤군거리구

갑—아 동무! 그건 동무의 강연이 흥미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즉 말하자면 너머 딱딱하단 말요. 알겠소? 강연 사업이란 우선 듣는 사람들의 생활과 결부되여야 하고, 또 가장 쉬운 말로 해얀단 말요

을—네 그러나 쎄미날을 힘든 말루 배웠기 때문에……

갑—거기에 강사들의 독창성이 있단 말요.

을—네 앞으로 많이 좀 배워야겠습니다.

판매원—〈나오면서〉 선생님!

갑—아! 지금 퇴근이요?

판매원—네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이 어제 말씀하신 사회주의 상업이란 무엇인지 알기 쉬운 말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음 그것은 말이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상업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뉴대를 강화 하는………

판매원—뉴대가 뭔가요?

갑—허어 동무! 그저 뉴대두 모르다니…… 원…거 그렇게 락후해서야 되겠소

판매원—미안합니다.

갑—음 그럼 에…사회주의 상업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판매원—저…뉴대가 뭔저……좀 가르쳐 주십시오.

갑—허어 그래……뉴대를 정말 모른단 말요? 뉴대라는 것은 뉴대……즉 뉴대는…… 경제학적 술어인데……경제학에 있어서의 가장 초보적인 술어인데……즉

판매원—좀 알기 쉬운 말로 가르쳐 주십시오.

갑—아니 그래 동문 경제학도 모른단 말요 동무가 바로 경제 일'군인데……음 경제라는 것은 정치와 불가분적인 전일체로서 상호 작용 및 발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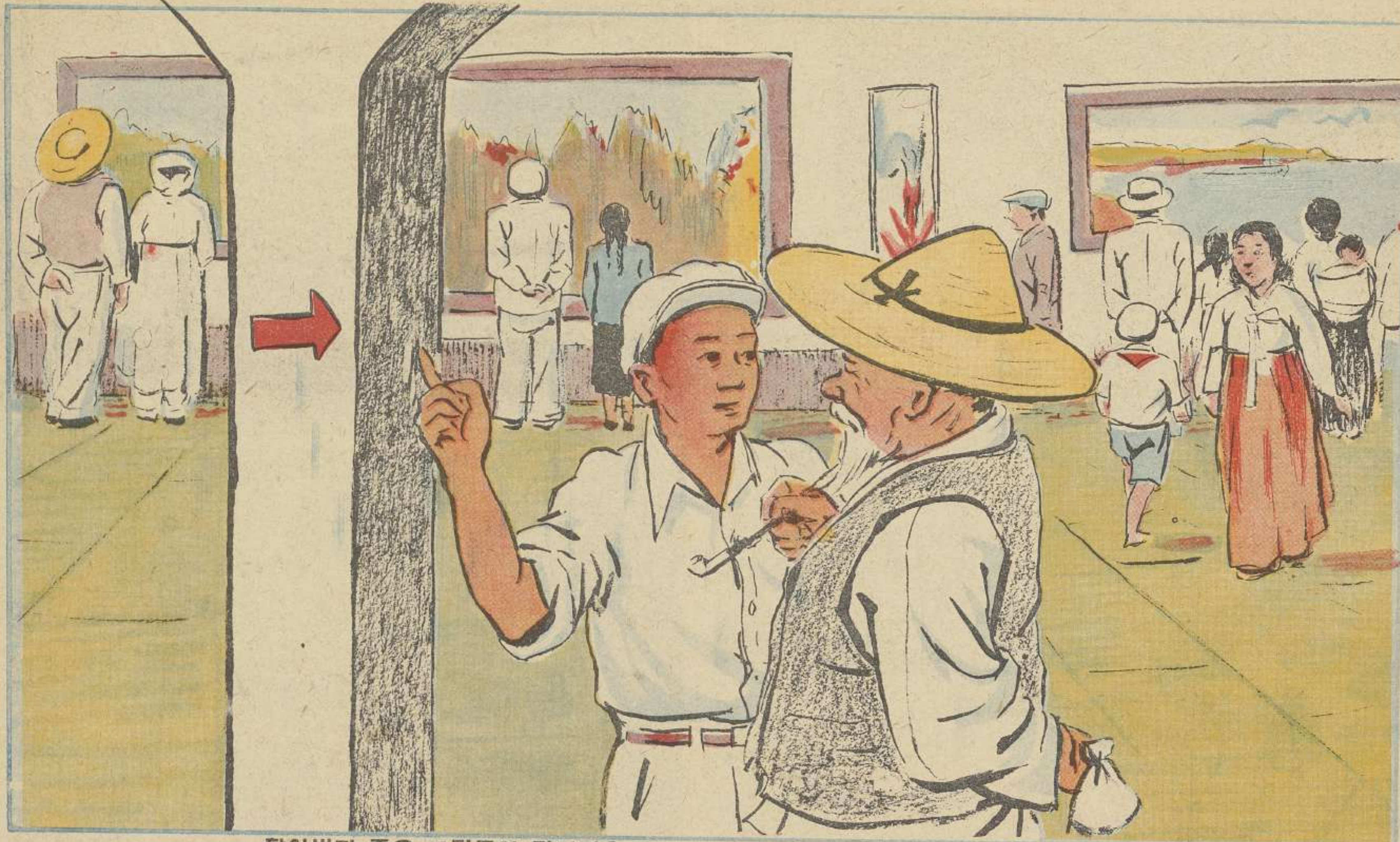
판매원—하아 〈한숨을 쉬고〉 모를 말을 물엇더니 점점 더 모를 말만 늘어가는군 ……〈나간다〉

갑—〈따라나가며〉 아니 동무! 동무! 원 저렇게 락후하다구야……

을—흥! 소 경읽듯하면서도 나보군 쉬운 말만 하라구… 〈나간다〉

원 광수 그림

미술 전람회관에서



—할아버지 좋은 그림들이 많구먼요
—그래두 우리가 해 놓은 그 웅장한 관개 공사는
여기선 볼 수 없군

허 능택 그림

일부 교원들은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 교수 요강을 작성할 대신에 낡은 교수 요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작년까지는 좀이 먹지 않었었는데…

조 병식 그림

록음실

사모님의 자녀 교양

어느날 하학후 진옥이와 함께 선생님이 오셨다. 진옥이 어머니는 하던 일이 별로 손을 떼면 안될 그런 일도 아니건만 《어서 들어가시지요》 하고는 하던일을 그대로 계속한다.

틈을 타서 방문한 선생님은 한참이나 기다려서 겨우 용건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되였다. 요사이 진옥이의 학습 태도가 좋지 못하다는 것과 학습 성적이 점차로 락후하여 가는데 대해서 집에서 많은 방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숙제를 전혀 해 오지 않은 관계로 학교에 나와서 도무지 깜깜이라고—그러니 집에 와서 꼭꼭 숙제를 해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 갔다.

사모님은 저으기 기분을 상하신 모양으로 《쥐' 뿔도 모르는게 선생이랍시고 우쭐거리면서…》 하고 노발 대발이시다. 자기 자녀들을 맡기고 그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앞에서 그 선생님의 위신이라고는 한푼어치도 생각치 못하는 학부형들이 때로는 있다.

이처럼 선생님의 위신을 떨어뜨리므로서 자녀 교양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생각 못 하는 모양이다.

그런것 쯤이야

본궁 화학 공장 소다 부문에 있는 소금 가마니들은 벌써 뜰안에 야적된채로 수개월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몇천매씩 되는 가마니 데미가 세개나 되건만 여러 달이 지나는 동안에 벌써 서로 통성명이 끝난지도 오라고 어느 데미의 몇번째 가마니는 어느 도 무슨 농업 협동 조합에서 어느 데미 몇번째는 어느 도에서 온 것이라는 것은 서로 서로 다 알만한 사이로 된지도 오라지요. 날이나 맑게 개인 날이면 제 까끔 제 마을 자랑에 신바람이 나기도 했건만 요사이 같이 날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모두 울상이 되여 하소연을 하게 된답니다.

로동자들이 비료를 더 많이 내겠다고 증산 계획까지 세우고 일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가마니 한장이라도 더 짜 보내겠다고 밤낮을 짜낸 가마니 건만——수천매의 가마니는 벌써 안타가운 마음을 참다 못하여 아우성을 친답니다. 해가 나도 말려 주려고도 안하고 우리들에게서는 벌써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니 그저 썩어가는 신세가 슬픈 일이라고요—

그렇지만 이 부문 일'군들은 언제까지나 본체 만체… 상부 지시만을 기다리시는지 그렇지도 않다면 그까짓 가마니 쯤이야 싸인게 가마닌데 하고 생각하시는지…

개미 장날

황북 린산군 소비 조합 창고에는 날마다 개미장이 서서 여간만 흥성거리지 않는다구요. 처음에는 개미들이 와짝 성해서 줄을 지어 모여 드는데 창고장은 영문도 모르고 부지런히 쓸어만 냈답니다. 그런데 쓰러낸 뒤도 없이 인차 또 모여들군 하더랍니다.

요사이 와서는 창고 문만 열면 그저 까맣게 달려붙는 지경이랍니다.

알아 본즉 이 창고에는 감자 엿 340kg가 반년 넘도록 쳐박혀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금년 초에 군 소 위원장 동무는 다전 상점 책임자가 시'가보다도 비싼 값으로 수매한 감자 엿을 창고에 넣으라고 창고장에게 지시를 하였답니다. 창고장은 시'가보다도 훨씬 비싸게 수매한 것을 처분할 일이 막연해서 강경히 반대했으나 오히려 위원장은 다전 상점 책임자더러 더 수매하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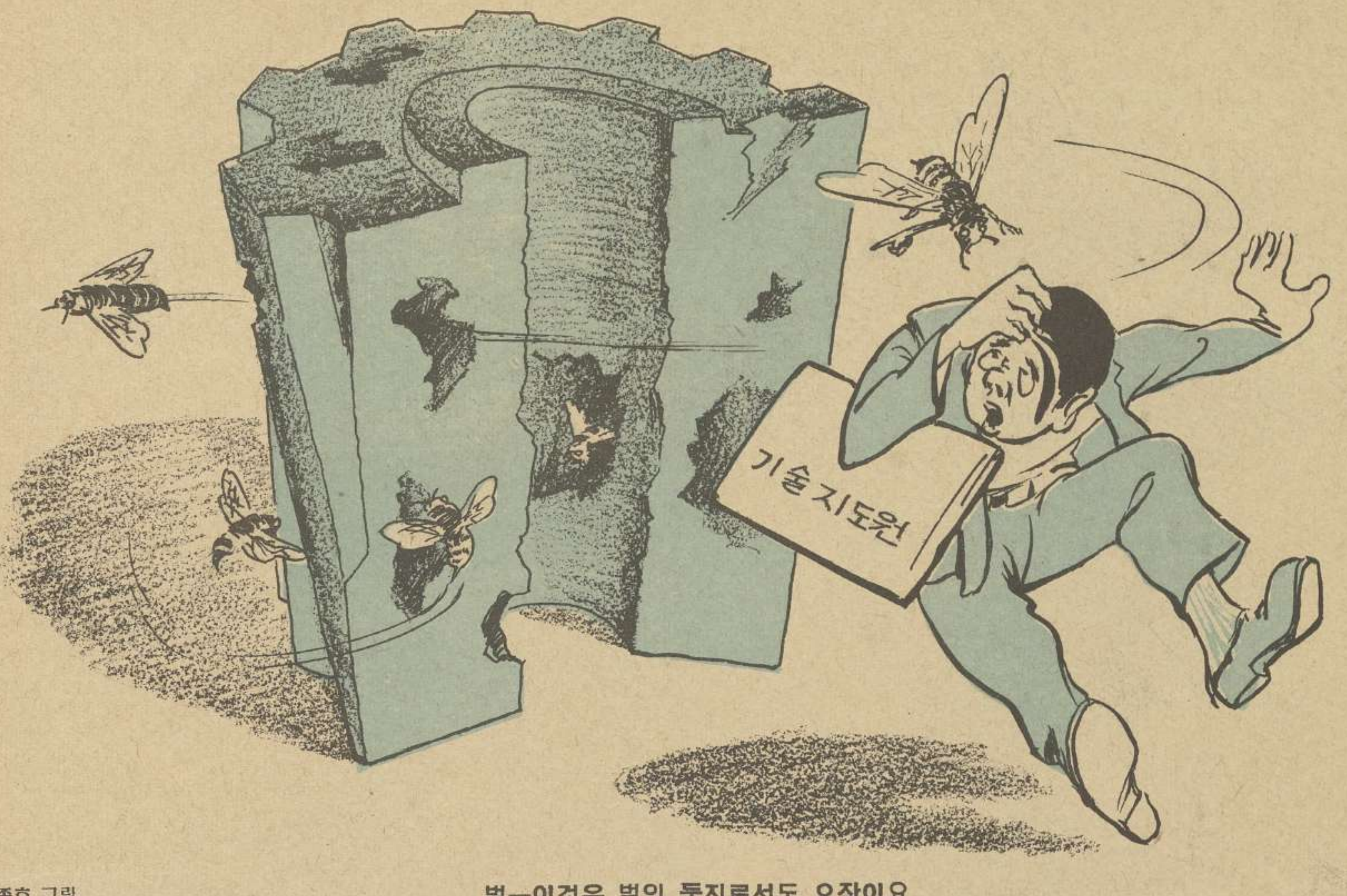
그래서 딴 계획이라도 있는가 했더니 반년이나 쳐박아 두어 요사이에 와서는 벌써 한 50kg는 변질하기 시작한 형편이니 개미들이 끄릴 수 밖에——

개미들이 위원장 동지의 이런 마음씨에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린다고——

오라지 않어 개미 나라로부터 위원장에게 꽃'다발이 전달될 것이라고요——

김 상 애

룡성 기계 주강 직장에서 나온 오작품



홍 종호 그림

벌—이것은 벌의 둥지로서도 오작이요

룡성 기계 공장에서는 기술적 지도의 부족으로 표준 조작법 위반과 자재 관리에서의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주강 오작품을 적지 않게 내고 있다.

원 광수 그림

편집 위원 장 진광, 유 항림, 김 선락, 박 기성, 정 준기
신 홍순, 백 인균, 송 영남, 리 수근,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7. 9. 10 40610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 9. 15 값(50원)

엎친데 덮치기
실업
빈궁
기아
무권리
박 승히 그림